

동부건설(주) Dongbu Corporation

본평가
평가일: 2018.05.25

평가개요	신용등급 A3	평가대상 기업어음	유효기간 2019.06.30
Analyst	김새롬 책임연구원 박춘성 실장	02)6966-2455 02)6966-2467	saerom610@scri.co.kr cspark1113@scri.co.kr
Latest Rating	평가일 -	구분 -	등급 -

재무요약

(단위: 억원)

(연결기준)	2015.12	2016.12	2017.12	2017.03	2018.03
매출액	6,982	5,855	7,015	1,278	1,455
영업이익(EBIT)	-356	161	256	11	52
EBITDA	-316	198	292	16	61
총자산	5,988	6,821	6,316	6,752	6,797
순차입금	1,649	152	-380	243	-285
EBITDA/매출액(%)	-4.5	3.4	4.2	1.2	4.2
NCF/경상투자(배)	48.6	-5.4	-2.4	-3.0	53.7
부채비율(%)	751.4	169.5	107.7	148.5	113.6
차입금커버리지(배)	N/A	0.8	-1.3	3.8	-1.2
유동성커버리지(%)	97.0	951.9	827.9	751.7	819.0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금융상품

주2: 차입금커버리지=순차입금/EBITDA

주3: 유동성커버리지=(현금및금융상품+EBITDA)/단기성차입금

주4: 순차입금은 회생채무가 포함된 수치임.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동부건설(주)의 기업어음 본평가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관급 토목 및 건축공사 중심의 양호한 사업포트폴리오
- 부동산 시장의 확대된 변동성 vs. 단순 도급공사 중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 관급공사 중심의 구조적 저수익성
-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에 기반한 재무안정성

■ 신용등급논리

1969.1월 설립된 동부건설(이하 '동사')는 토목·건축·플랜트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2017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6위(2016년 27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2015.1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6.10월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계기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관급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양호한 시장지위와 수주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교통·항만 분야의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토목공사에서 양호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연결매출액 기준 건축 42.8%, 토목 37.6%, 플랜트 2.5%, 기타 17.0%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포트폴리오도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민간 건축부문의 매출과 수주잔고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자체 개발사업 보다는 단순도급 위주의 공사수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주택경기애 따른 실적변동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

구조적 저수익성의 관급 및 단순 도급공사 위주로 지표상 수익성은 미흡하다. 관급공사의 구조적 저수익성과 단순도급 형태의 민간건축 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0.4%로 지표상 수익구조는 열위한 수준이다. 다만, 공사대금 회수가 용이한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고 운영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와 보수적인 투자전략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6.10월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무 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주력사업에서의 안정적 시장지위로 영업실적이 제고되고 있으며 단순도급 위주의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지출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도 현수준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모니터링 요소

향후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 미확정 회생채무의 정산과정 및 민간 건축사업 투자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신규수주 확대에 외형성장 및 실적변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 수주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무차입의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진행사업 성과 부진 및 주택경기 둔화로 실적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 외형 회복이 지연되면서 재무부담이 현 수준에서 확대될 경우

2017년 시공능력평가 36위의 중견 건설업체

1969.1월 미룡건설(주)로 설립된 동사는 토목·건축·플랜트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2017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6위(2016년 27위)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2015.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2015.10월 동부그룹에서 분리되었으며 2016.10월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계기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 2018.3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지분 67.0%를 보유한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이며,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의 동사 지분인수 시 한국토지신탁이 PEF 지분투자 형태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했으며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의 대주주임.
- 2015.10월 지분을 하락 및 임원변동을 사유로 동부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18.3월 말 기준 동부엔지니어링(주), Dongbu Australia Pty, Ltd. 등 4개의 종속기업을 100.0%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임.

[종속기업 사업현황]

(단위: 억원)

기업명	주요 사업	설립연월	자산총액	매출액
동부엔지니어링(주)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1989.11월	400	605
Dongbu Australia Pty, Ltd.	호주 자원개발 사업	1994.03월	107	-
동부자산관리(주)	회생계획에 따른 부인권 소송 수행	2016.10월	183	7
동부당진솔라(주)	지붕형 태양광발전	2011.11월	56	11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12월 말 기준)

관급 토목 및 건축공사 중심의 양호한 사업포트폴리오 보유

동사는 교통·항만 등의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관급공사와 단순도급 중심의 민간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회생절차 진행 전·후로 동부익스프레스(주), 동부하이텍(주) 등 이중 사업부를 매각하여 건설공사 및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제공의 단일사업으로 재편되었으며, 2017년 말 연결기준으로 토목·건축·플랜트 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부문과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중심인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년 연결기준 사업부별 매출구성은 토목·건축·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부문 83.0%, 소각장·예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운영부문 8.4%, 토목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부문 8.6%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부문의 발주처별 매출구성은 2017년 기준 관급공사 69.5%, 민간공사 30.5%로 관급공사가 중심이 되고 있음.
- 건설부문의 공종별 매출구성은 2017년 기준 건축 51.6%, 토목 45.3%, 플랜트 3.1%를 보이고 있으며, 센트레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건축 수주 확대에 따라 건축부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부문별 매출구성]

(단위: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구성	토목	공공	4,168	2,994	2,582	2,450	2,475
		민간	321	262	155	220	160
		소계	4,489	3,256	2,737	2,670	2,635
	건축	공공	2,915	3,176	2,964	1,714	1,474
		민간	1,626	1,287	147	249	1,524
		소계	4,541	4,463	3,111	1,963	2,998
	플랜트	공공	254	67	92	166	92
		민간	28	82	13	1	86
		소계	282	149	105	167	178
	건설부문		9,312	7,868	5,953	4,800	5,811
운영부문		701	558	489	471	589	
엔지니어링부문		698	580	561	582	605	
총 계		10,711	9,006	7,003	5,853	7,005	
시공능력평가 순위		22위	25위	27위	27위	36위	
매출비중 (%)	토목	공공	38.9	33.2	36.9	41.9	35.3
		민간	3.0	2.9	2.2	3.8	2.3
		소계	41.9	36.2	39.1	45.6	37.6
	건축	공공	27.2	35.3	42.3	29.3	21.0
		민간	15.2	14.3	2.1	4.3	21.8
		소계	42.4	49.6	44.4	33.5	42.8
	플랜트	공공	2.4	0.7	1.3	2.8	1.3
		민간	0.3	0.9	0.2	0.0	1.2
		소계	2.6	1.7	1.5	2.9	2.5
	건설부문		86.9	87.4	85.0	82.0	83.0
운영부문		6.5	6.2	7.0	8.0	8.4	
엔지니어링부문		6.5	6.4	8.0	9.9	8.6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

주: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 수치임.

민간건축 비중증가로 양호한 외형성장을 시험하였으나, 변동성은 확대

동사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외신인도 저하 등에 기인한 수주감소로 과거 대비 외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회생절차 종결 후 영업환경이 안정되면서 신규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공중 구성은 과거 관급토목 위주에서 민간건축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 확보한 수주잔고 물량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현 수준의 사업포트폴리오 및 외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5,855억원으로 2014년 8,929억원의 65.6%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 회생절차 종결 후 신규수주 증가에 연동되어 회복하는 추세임.
- 2015년 82.0% 수준까지 확대되었던 관급공사 수주잔고는 최근 민간건축 신규 수주확대로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2017.12월 말 기준 동사제시 10,944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최근 민간 건축부문의 대규모 신규 수주가 동사의 수주물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관급토목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높아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분양사업은 자체하고 단순도급 위주의 공사수주를 통해 사업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주택 경기와 연계된 수익변동성은 과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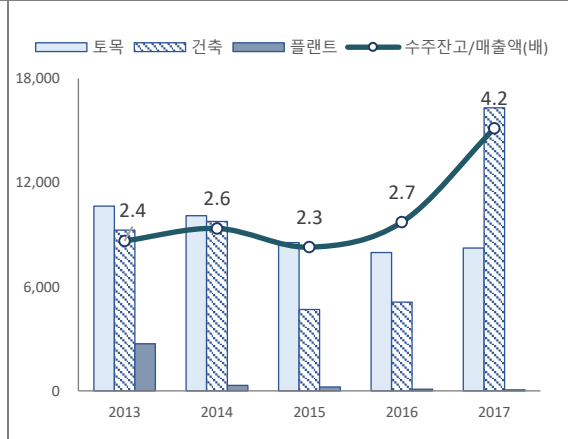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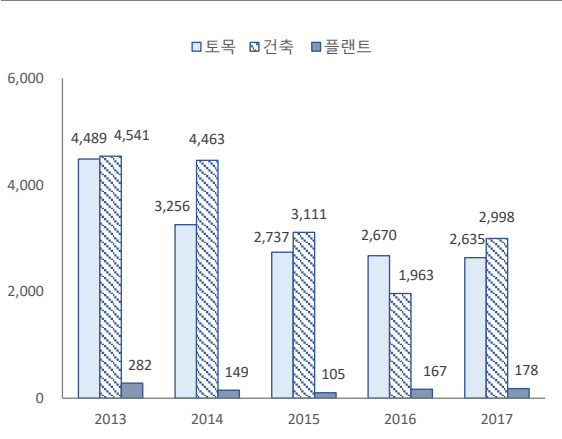
-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업을 통해 동두천생연동 개발신탁(508억원), 남약신도시 개발신탁(1,882억원), 부산감만1구역 정비사업(4,446억원) 등 총6,836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수주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 다만, 진행중인 토목공사에서 추가적인 원가율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수주물량이 민간 건축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수익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종별 매출액]

(단위: 억원)

[공종별 수주잔고]

(단위: 억원, 배)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

주: 공종별 매출액과 수주잔고(미착공부분 포함)는 별도기준임.

[주요 진행공사 현황]

(단위: 억원)

분류	사업명	준공일	도금액	수주잔고
토목	안성-성남간 고속도로 제3공구	2022.12	1,592	1,592
	군장국가산단인입철도 제2공구	2019.12	1,089	387
	영주시우회도로	2018.08	1,008	97
	동읍-봉강도로건설공사	2020.08	954	412
	중앙선 원주-제천 4공구	2018.12	919	110
	건축	의정부고산 S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019.12	932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2018.12	591	19
대구대곡 2-SBL 1공구		2018.10	587	281
하남감일 A4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2019.12	429	421
YRP 병원 및 치과		2018.06	382	46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2018.12	361	156
항동아파트 3공구		2018.05	541	297
민간		리츠칼튼호텔 리모델링	2017.08	996
	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신축공사	2019.02	969	964
	부산 가야 공동주택 개발사업	2020.06	426	382
	부산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미정	4,446	4,446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미정	2,176	2,176
	남약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2019.10	1,882	1,879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미정	1,174	1,174

자료: 사업보고서 및 동사제시(2017.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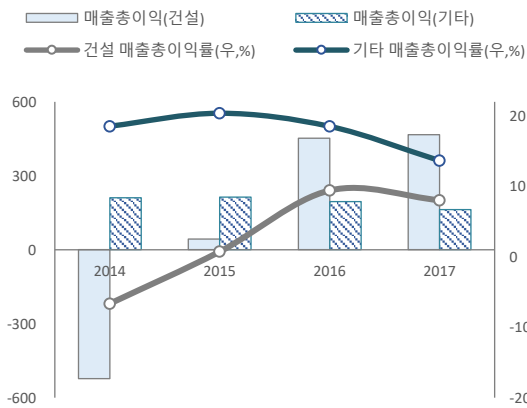
수익성은 열위하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로 실적안정성 유지

동사는 관급공사와 단순도급 형태의 민간공사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열위(2017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률 3.6%)한 가운데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사계약 취소 및 대규모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2015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회생종결 이후 영업을 정상화되고 원가효율화 노력으로 2016년 흑자전환 하였으며 최근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좋은 민간건축 수주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 동사는 토목공사의 비중이 높고 민간건축의 경우에도 자체개발이 아닌 단순도급 형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채산성은 저조한 수준이나, 수익구조의 안정성은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다.
- 주택건축 비중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영부문 및 엔지니어링부문의 안정적 수익창출로 건설부문의 미흡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음(2017년 기타부문의 매출총이익 비중 25.9%, 매출총이익률 13.7%).
- 2014년 대규모의 손상인식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14.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영업정상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효율화 노력으로 2017년 5.4%로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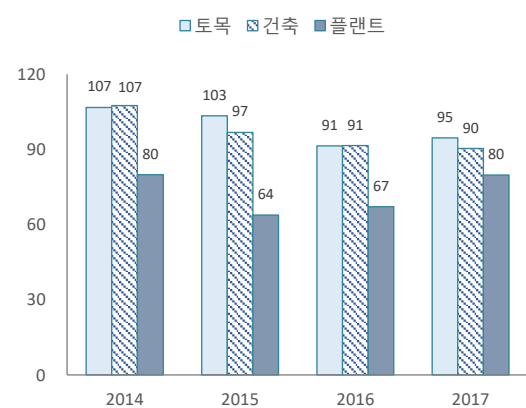
[부문별 수익성]

(단위: 억원, %)



[건설부문 공종별 원가율]

(단위: %)



자료: 별도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

자료: 별도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

주: 기타부문은 운영부문과 엔지니어링 부문을 단순 합산한 수치임.

회생채무 조정 및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로 양호한 재무구조 보유

2016.10월 회생종결 후 회생채무 조정 및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의 인수대금 유입으로 전반적인 재무부담은 과거대비 크게 완화되었다. 2017.4월 사채를 조기 상환한 이후 회생채무를 제외할 경우 별도기준으로 무차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포트폴리오 또한 단순 도급공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지출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현 수준의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2017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07.7%로 전기 169.5%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공사대금의 유입에 기반한 안정적 현금창출력으로 음(-)의 순차입 규모로 전환되었음.

-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과거대비 수익변동성이 확대 되었으나 2017.12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 지급보증 우발채무 부담이 없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무구조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 배)

구분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EBITDA	-1,007	-1,528	-316	198	292
총차입금	11,942	3,645	3,029	2,152	1,191
현금및금융상품	1,904	999	1,380	2,000	1,570
조정순차입금	14,769	5,109	2,271	621	-99
순차입금	10,037	2,646	1,649	152	-380
선수금	1,045	622	888	670	401
PF우발채무	4,000	2,028	-	-	-
조정부채비율(%)	767.4	4,508.2	895.6	206.0	187.6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N/A	N/A	N/A	3.1	-0.3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

주1: 우발채무 및 PF우발채무 규모는 동사가 제시한 수치임.

주2: 조정순차입금=총차입금+PF우발채무+(선수금+초과청구공사)*0.7+상환우선주-현금 및 금융상품

주3: 조정부채비율(%)=(부채총계+우발채무)/(자본총계)*100

주4: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조정순차입금/EBITDA

유동성위험 관리수준 양호

단기소요자금을 상회하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따른 현금창출력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험 관리는 양호한 수준이다.

- 2017년 말 연결기준 단기성차입금은 225억원이며, 단기성차입금 비중 또한 18.9%로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임.
- 미확정 회생채무 금액이 확정될 시 현금유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ESCROW계좌에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해 585억원을 예치함에 따라 단기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함.

[유동성위험 지표]

(단위: 억원, %)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3
EBITDA	-1,528	-316	198	292	61
현금및금융상품	999	1,380	2,000	1,570	1,436
사용제한금액	496	122	1,048	805	798
단기성차입금	3,047	1,097	231	225	205
총차입금	3,645	3,029	2,152	1,191	1,150
단기성차입금비중(%)	83.6	36.2	10.7	18.9	17.8
유동성커버리지(%)	-17.4	97.0	951.9	827.9	819.0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및 분기연결검토보고서

주1: 단기성차입금비중=단기성차입금/총차입금

주2: 유동성커버리지=(현금및금융상품 등+EBITDA)/단기성차입금

주3: 단기성차입금 및 총차입금은 회생채무 포함한 금액임.

Fundamental Review

단기신용도 A3	Fundamental bbb
--------------------	---------------------------

Mapping Grid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		
매출 및 이익 변동성						√	
사업 기반	시공능력순위				√		
	다각화					√	
	경쟁역량				√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
재무 정책	운전자금관리				√		
	유동성 리스크 관리				√		
	투명성 및 안정성						
레버 리지	조정부채비율(%)		√				
커버 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					
모형신용도		aaa	aa	a	bbb	bb	b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 수준	양호	보통	미흡
-------------	----	----	----

Mapping Grid: 건설

사업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10%	≥10	≥5	≥1	≥0.5	≥0.05	<0.05
매출 및 이익 변동성		15%	매우 낮음	상당히 낮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업 기반	시공능력순위	5%	≤3	≤7	≤20	≤70	≤150	>150
	다각화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경쟁역량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재무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10%	≥15	≥10	≥6	≥3	≥2	<2
재무 정책	운전자금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20%	매우 보수적	상당히 보수적	보수적	비교적 보수적	공격적	매우 공격적
	투명성 및 안정성							
레버 리지	조정부채비율(%)	10%	≤150	≤200	≤300	≤450	≤800	>800
커버 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10%	≤2	≤4	≤6	≤10	≤20	>20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산업별 평가방법론_건설(2016) 등입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계약체결일은 2018년 5월 9일이고, 평가개시일은 2018년 5월 10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든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시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